

# 내용중심 대학 교양영어교재 사용결과 분석

박준언  
(숭실대학교)

**Park, Jun-Eon.** 2003. **College English Education Using a Content-based English Textbook.**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3-2. 233-254.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 of using a content-based English textbook in teaching English to Korean college students. The textbook reflected the recent trend in EFL/ESL development that subject matters should be taught as part of the language instruction. The analysi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to college students at the end of the semester revealed an encouraging result that this new type of ELT college textbook is effective in helping Korean college students prepare for learning their subject areas through English. Based on this positive outcome, a suggestion is made that the current general purpose college English teaching curriculum be shifted toward a content-based specific purpose type to accommodate the increasing demand of learning subject areas through English in colleges in Korea.

**Key Words:** content-based instruction, college English textbook,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 1. 서론

주지하다시피 영어는 우리나라 대학들의 교양교육과정의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1)가 발간한 '2000년도 대학교육개혁 사례집: 교육과정 개편'에 의하면, 교육과정 평가에 참여한 총 60개의 일반대학들(국·공립 대학교 12개교, 사립 대학교 48개교) 중 절반인 30개의 대학들이 영어를 교양선택과목이 아닌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해 놓고 있어, 우리나라 대학들이 학생들의 영어사용능력 향상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1990년대부터, 대학의 세계화, 국제화 노력에 발맞춰, 각 대학들은 기존의 영산문 강독 중심의 교양영어교육에서 탈

피하여,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위주로 교양영어교육과정을 개편하였고, 영어사용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재들을 개발하여 교육해 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양영어교육을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운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영어 원어민 교수들에 의한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은 그동안 영어 원어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제한되어왔던 우리나라의 영어사용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습한 영어지식을 원어민 교수와의 접촉을 통해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해주어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사용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기여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박준언, 1997). 오늘날 대부분의 국내 대학들이 원어민 교수를 활용한 교양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이는 가장 보편적인 대학 교양영어교육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회화위주의 대학 교양영어교육 프로그램들은 한 단계 더 발전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즉,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영어사용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1학년 학생들 위주의 교양영어교육을 바탕으로, 2학년 이상의 전공과정 학생들에게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 수강이 가능하도록 학생들의 영어사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주어야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회화위주 교양영어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대학들도 학생들의 전공과목들을 우리말이 아닌 영어로 수강하도록 하는 이른바 특수목적 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SP) 또는 학문목적 영어(English for Academic Purposes)의 도입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를 교양영어교육 차원에서 실시할 때가 온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예상되는 이러한 영어교육의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 한 대학교에서 개발한 내용중심 교양영어교재를 활용한 영어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설문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2. 내용중심 대학 교양영어교재 개발

## 2.1. 이론적 배경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내용중심 언어교육(content-based instruction: 이후 CBI로 약칭함)은 언어학습과 내용학습의 통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외국어 학습의 초점이 언어학습에 한정된 기존의 외국어교육과 대별된다. Brinton, Show와 Wesche(1989, pp. 3-4)는 CBI의 정당성의 근거로 다음의 5가지를 제시한다.

- \* 특수목적용 언어(language for specific purposes: LSP) 관련 연구들이, 외국어 교육의 초점을 학습자의 요구에 최대한 부합하는 언어형태와 언어기능에 맞출 것을 강조한다.
- \* 내용을 통한 언어학습이 학습자의 학습동기 유발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을 초래한다.
- \* CBI는 학습자의 기존 경험을 학습에 활용해야 한다는 교육학적 원리를 반영한다.
- \* 언어학습은 사용맥락과 유리된 단편적인 언어용법(usage)의 학습보다는 사용맥락 속에서의 언어사용(use)의 학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 언어입력이 상황맥락과 언어적 맥락 속에서 주어질 때, 언어 학습자가 이해할 있는 언어입력(comprehensible input)이 될 수 있다.

Stryker와 Leaver(1997)는 CBI를 외국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CBI가 기존의 전통적인 외국어 교육과 달리, 의사소통능력을 구성하는 두 주요 요소인 언어용법과 언어사용을 균형적으로 도모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Brinton외 2인(1989)은 대표적인 내용중심 외국어교육 프로그램들로서 특수목적 언어(language for specific purposes: LSP) 교육 프로그램과 몰입식 언어교육(immersion language education) 프로그램을 들고 있다. 이중 LSP는 CBI 외국어 교육의 전형적인 모델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들은, 외국어 학습자의 언어사용에 대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들 바탕으로 학습교재

들과 교수방법들을 개발하여 사용한다. 한편 몰입식 언어교육 프로그램들에서는 학습 교과목의 전부나 일부를 외국어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외국어 학습이 교과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Swain & Johnson, 1997).

Brinton의 2인은 CBI가 특히 대학생의 외국어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세 가지의 CBI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제중심 언어학습(theme-based language instruction)은 외국어 교사가 내용과 언어를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모듈형식의 프로그램이고, 둘째, 내용보호학습(sheltered content instruction)은 학생들이 학습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영역 전문가가 학습내용을 특수하게 구성한 프로그램이며, 셋째, 병존언어학습(adjunct language instruction)은 학생들이 언어수업과 내용수업을 분리, 병행하여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필자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CB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대학생 집단임을 주장한 바 있다(박준언, 2000). 지난 몇 년간 대학 교양영어교육에 대한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각 대학들마다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많은 대학들이 영어 원어민 교수들을 채용하여 학생들에게 제한적이거나 영어 원어민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 원어민 교수를 활용한 대학 교양영어교육과정의 학습내용이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 표현의 학습에 머물고 있어, 영어를 통한 학생들 각자의 전공 학문영역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많이 부족한 것이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 이상의 고차원적인 학문적 영어사용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전공 학문영역과 연계된 보다 질적으로 심화된 영어교육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경우 CBI는 대학영어교육의 새로운 구체적인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Straight(1997)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CBI 교육의 모델로, 전공영역과 외국어 학습을 연계하는 외국어를 사용한 교과과정 학습(foreign languages across curriculum: FLAC)을 대학생들을 위한 외국어교육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 2.2. 교재개발 및 구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차 우리나라 대학들에서, 전공 학문 영역들을 우리말이 아닌 영어로 수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이에 대비한 학문수행 영어사용능력을 제고해 주기 위해서, 서울 소재의 S 대학교는 신입생 교양영어교육과정을 종전의 1,2 학기 회화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1학기에는 회화중심의 교육과정을 유지하고, 2학기에는 내용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였다.

1학년 전체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교양영어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특성상, 또한 학부제의 실시로 인해 아직 학생들의 구체적인 전공 영역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전공학문 영역을 세분화한 순수한 의미의 학문목적 영어(English for academic purposes)교육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중심 영어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영역의 주제를 선별하여 이를 중심으로 영어강의를 수강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skills)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즉 Brinton의 2인이 제시한 3가지 내용중심언어교육 모델들 중에서 주제중심 언어학습모델을 선택하였다. 주제의 선별은 교재 개발자들의 일방적인 선별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그중 가장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 문화(culture)관련 주제와 인터넷(internet) 관련 주제의 두 가지 내용 주제로 선별하였다.

따라서 S 대학교의 내용중심 교양영어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장차 각자의 전공학문 영역을 영어로 수강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학문영어사용기술(study skills)을 습득하게 하는 준비단계의 프로그램(bridging program)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 내용중심 교양영어교재인 Campus Connections II(Davies, D., MacMartin, F., MacRae, S., & Brown, L. 2001)의 개발은 S 대학교에서 다년간 신입생 교양영어 강의를 담당한 경험을 지닌 4명의 영어 원어민 교수들이 담당하였고, 1년간에 걸친 교재개발 과정을 거친 후 2001년부터 사용해 오고 있다 (구체적인 교재 구성은 부록 1을 참조).

교재에 포함된 구체적인 영어사용기술들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Listening: asking for and giving clarification  
 listening for gist  
 listening for specific information  
 note-taking  
 listening for main points  
 cloze-type listening

Reading: guessing meaning from context,  
 scanning  
 skimming for the main idea  
 summarizing

Writing: identifying paragraph form  
 structuring and planning paragraph  
 combining sentences  
 supporting statements  
 editing paragraphs

말하기(speaking)는 별도로 section을 구성하지 않고, listening, reading, writing과 연계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다.

### 3. 교재사용결과 분석

학생들은 Campus Connections II 교재를 사용하여 1주일에 3시간씩 16주(총 48시간) 동안 주제중심의 교양영어강의를 수강하였다. 본 교재를 사용한 내용중심 교양영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위해 2002년 12월 2학기 종강에 즈음하여, 본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재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2,500명 정도의 수강 학생들 중 총 1794명의 학생들이 본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학생들의 단과대학 별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설문 응답학생들의 단과대학별 분포

	도수	백분율(%)	유효백분율(%)
인문대	275	15.33	15.33
사회대	176	9.81	9.81
경상대	343	19.12	19.12
법대	71	3.96	3.96
자연대	134	7.47	7.47
공대	606	33.78	33.78
정보대	189	10.54	10.54
*결측치	0	0.00	
합계	1794	100.00	100.00

3.1. 영어사용능력 향상효과

Campus Connections II를 활용한 영어사용능력 향상 여부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결과는 표 2 - 5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어휘 분야에서 80%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Campus Connections II가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영어 쓰기의 경우 긍정적 반응율이 90%를 넘어서, Campus Connections II가 학생들의 영작문능력 신장에 특히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의 영작문 능력의 향상의 원인으로, 본 교재가 일반적 회화위중의 교양영어교재와 달리, 주제문 파악, 단락(paragraph) 수준의 글쓰기, 작문의 교정 및 편집 등, 학문적 영문 작성에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표 2. 본교재학습을 통한 Listening 향상정도

	도수	백분율(%)	유효백분율(%)
변화 없음	345	19.23	19.28
조금 향상	1135	63.27	63.44
매우 향상	36	2.01	2.01
*결측치	5	0.28	
합계	1794	100.00	100.00

표 3. 본 교재학습을 통한 Speaking 향상정도

	도수	백분율(%)	유효백분율(%)
변화 없음	208	11.59	11.62
조금 향상	1037	57.80	57.93
상당한 향상	458	25.53	25.59
*결측치	4	0.22	
합계	1794	100.00	100.00

표 4. 본 교재학습을 통한 Reading 향상정도

	도수	백분율(%)	유효백분율(%)
변화 없음	287	16.00	16.13
조금 향상	1033	57.58	58.07
상당한 향상	409	22.80	22.99
매우 향상	50	2.79	2.81
*결측치	15	0.84	
합계	1794	100.00	100.00

표 5. 본 교재학습을 통한 Writing 향상정도

	도수	백분율(%)	유효백분율(%)
변화 없음	132	7.36	7.39
조금 향상	821	45.76	45.99
상당한 향상	684	38.13	38.32
매우 향상	148	8.25	8.29
*결측치	9	0.50	
합계	1794	100.00	100.00

본 교재 학습을 통해 영어의 각 영역별 기능들(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이 균형적으로 학습되었는가? 의 설문예, 전체 학생들의 88.6%의 학생들이 응답하였는데, 이들 중 12.7%의 학생들만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여, 본 교재가 대체적으로 영어의 네 가지 영역을 학습하는데 효과적임을 보여 주었다.

또한 본 교재의 구성과 내용이 학생들의 영어학습동기 유발에 효



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설문결과 87.2%의 학생들이 보통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하여, 학생들의 영어학습동기 부여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 전공학문 영어학습기술(study skills)의 향상도**

다음으로, 학생들이 향후 영어로 전공과목들을 수강할 경우를 대비해 본 교재를 활용한 영어학습이 영어를 통한 전공과목 수강에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의 응답 분석 결과, 강의내용 받아적기 요령, 강의 내용의 청취 요령, 강의 교재내용의 파악요령, 학문적 영문 쓰기 요령, 논리적인 강의내용 발표하기 요령 등, 전공과목을 영어로 수강하는데 요구되는 기술들에 있어서, 학생들은 최소 70%에서 90%의 긍정적 평가를 하여 Campus Connections II를 활용한 영어학습이 이러한 학습기술들의 습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받아적기 요령향상 70.2%, 강의내용 청취요령 향상 90.1%, 강의교재내용 파악요령 향상 89.3%, 학문적인 영문 쓰기능력 향상 74%, 논리적 강의 내용 발표요령 72%).

본 교재를 활용한 영어학습이 학생들이 향후 전공과목들을 영어로 수강할 경우 어느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설문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95.3%에 해당하는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학생들의 전공 영어수업에 대비하여 개발한 본 교재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표 6. 본 교재학습으로 장차 전공과목을 영어로 수강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가?

	도수	백분율(%)	유효백분율(%)
도움이 안됨	66	3.68	3.70
약간의 도움	1064	59.31	59.67
상당한 도움	623	34.73	34.94
매우 도움	30	1.67	1.68
*결측치	11	0.61	
합계	1794	100.00	100.00

### 3.3. 전공학문 영역 영어수강에 필요한 기술

학생들의 관점에서 전공과목들을 영어로 수강할 경우 요구되는 학습기술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여, 표 7 - 10의 결과를 얻었다. 응답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 학생들의 47.6%가 영어청취능력을 가장 중요한 기술로 생각하였으며, 다음으로 영어원서독해 기술(27%), 영어 발표기술(24.2%), 영작문 기술(4.4%)의 순이었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자신들의 영어 청취능력 부족이 영어를 통한 전공강의 수강에 가장 큰 장애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영작문 기술 습득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전공과목들이 영어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영어로 글을 써야하는 상황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때문인 듯하다.

표 7. 전공을 영어로 학습할 경우 가장 요구되는 영어사용기술:  
원서독해능력

	도수	백분율(%)	유효백분율(%)
1순위	460	25.64	27.04
2순위	457	25.47	26.87
3순위	408	22.74	23.99
4순위	376	20.96	22.10
*결측치	93	5.18	
합계	1794	100.00	100.00

표 8. 전공을 영어로 학습할 경우 가장 요구되는 영어사용기술:  
청취능력

	도수	백분율(%)	유효백분율(%)
1순위	825	45.99	47.58
2순위	645	35.95	37.20
3순위	177	9.87	10.21
4순위	87	4.85	5.02
*결측치	60	3.34	
합계	1794	100.00	100.00

표 9. 전공을 영어로 학습할 경우 가장 요구되는 영어사용기술:  
영작문 능력

	도수	백분율(%)	유효백분율(%)
1순위	74	4.12	4.37
2순위	175	9.75	10.33
3순위	618	34.45	36.48
4순위	827	46.10	48.82
*결측치	100	5.57	
합계	1794	100.00	100.00

표 10. 전공을 영어로 학습할 경우 가장 요구되는 영어사용기술:  
영어 말하기 능력

	도수	백분율(%)	유효백분율(%)
1순위	416	23.19	24.19
2순위	420	23.41	24.42
3순위	487	27.15	28.31
4순위	397	22.13	23.08
*결측치	74	4.12	
합계	1794	100.00	100.00

다음으로, 전공과목들을 영어로 수강할 경우 적정한 교수의 영어 사용 비율에 대한 설문결과,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생들은 대체로 25-75%의 범위 내에서 영어를 사용할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2.1%). 강의 전체를 영어로만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9.2%에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전공과목들을 영어로 강의할 경우,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 영어와 함께 우리 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사용해야 할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11. 전공분야를 영어로 수강할 경우 적정 영어사용 비율

	도수	백분율(%)	유효백분율(%)
25% 미만	183	10.20	10.28
25-50%	495	27.59	27.79
50-75%	611	34.06	34.31
75-100%	329	18.34	18.47
100%	163	9.09	9.15
*결측치	13	0.72	
합계	1794	100.00	100.00

### 3.4. 전공학문영역 영어수강의 장애요소

전공과목을 영어로 수강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장애요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설문결과, 학생들은 가장 심각한 장애요소로서, 자신들의 영어사용능력의 부족을 들었으며(59.2%), 그 다음으로 전공내용의 어려움(29.6%), 담당교수의 영어사용능력 부족(8.4%), 영어강의에 대한 인식부족(3.8%)의 순이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대학들이 전공과목들을 영어로 강의하고자 한다면, 학생들이 전공학문을 영어로 수업하는데 필요한 영어사용기술들을 보다 심도있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교양영어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 3.5. 교양영어교육과정의 구성

대부분 대학교들의 교양영어 강좌들이 1학년에 개설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학교 1학년 교양영어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2%가 1,2 학기 모두 영어회화 위주의 교과과정을 선호하였으며, 36.2%의 학생들은 1학기에는 영어회화를 중심으로, 2학기에는 전공 영어과목 수강에 대비한 내용중심의 영어교과과정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학생들이 아직은 기존의 영어회화 위주의 대학 교양영어 교육과정에 익숙해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러한 현상은 회화 위주의 교양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응답자의 1/3이 넘는 학생들이 (36.2%) 영어회화위주의 교육과 함께 전공과목 영어수강을 대비한 내용중심 영어교육과정 개설을 선호한 점은, 본 교재가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어, 향후 전공 영어수강과 연계한 내용중심 대학 교양영어교재 개발에 긍정적인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표 12. 1학년 교양영어교육과정의 바람직한 구성

	도수	백분율(%)	유효백분율(%)
1,2학기 영어회화	1059	59.03	62.00
1: 영어회화, 2: 내용	618	34.45	36.18
1,2학기 내용중심	30	1.67	1.76
*결측치	86	4.79	
합계	1794	100.00	100.00

전공과목 영어수강과 관련하여 본 교재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에 대한 설문에는 전체 학생들 중 56.3%의 학생들이 설문 응답했는데, 이들 중 23.5%가 듣기와 말하기 학습의 강화를 희망하였으며, 다음으로 전문, 전공영역 용어들의 포함(19.2%), 체계적인 문법내용의 설명(17.4%), 시사적인 내용의 기사 포함(11.7%)의 순이었다.

표 13. 전공과목 영어수강과 관련하여 본 교재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내용

	도수	백분율(%)	유효백분율(%)
전문,전공 용어	194	10.81	19.21
체계적 문법설명	176	9.81	17.43
시사적 내용의 글	118	6.58	11.68
듣기, 말하기 강좌	237	13.21	23.47
흥미있는 내용의 글	64	3.57	6.34
기타	221	12.32	21.88
*결측치	784	43.70	
합계	1794	100.00	100.00

본 교재의 장점에 대한 설문에서, 총 64.3%의 응답자들 중, 학생들은 장점으로, '교재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있음'(37.2%), '체계적인 구성'(21.8%), '내용의 평이성'(20.3%) 등을 들었으며, 반면 교재의 단점으로는 '학습시간 대비 학습량의 과다'(19.5%), '난이도 조절의 실패'(15.8%), 듣기, 말하기 부분의 취약성(12.8%), 교재편집의 어수선향(9.6%), 주제의 다양성 결여(5.9%)의 순으로 들었다.

본 교재를 통한 학습이 보다 효과적인 전공내용의 영어학습을 준비하기 위한 교재가 되기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설문결과, 전체 학생들의 51%만이 응답을 하였는데, 이들 중 22.3%가 듣기, 말하기 부분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보다 흥미있는 내용의 추가(15.2%), 어휘, 문법사항의 보강(10.8%)의 순으로 보완 사항을 지적하였다. 설문 응답 학생들의 1/5 정도(22.3%)가 교재의 내용중 듣기, 말하기 부분의 보강의 필요성을 지적한 점은 향후 본 교재가 효과적인 내용중심의 대학영어교재가 되기 위하여, 영어사용의 네 가지 영역(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에 대한 보다 세밀한 구성 및 배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4. 결론

본 논문에서 서울소재의 S 대학교에서 실시한 내용중심 교양영어교육의 결과를 수강학생들의 설문 응답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 대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이어서, 이를 우리나라 대학 교양영어교육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자못 크다고 하겠다.

내용중심영어교재를 활용하여 영어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영어사용능력뿐 아니라 전공영역을 영어로 수강하는데 필요한 학습기술들을 학습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CBI 영어교육이 우리나라 대학 교양영어교육의 주요한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의 앞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BI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은 대학생들이다. Duddley-Evans와 St. John(1998)은 CBI에 바탕을 둔 특수목적 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SP) 프로그램들이 대학생들에게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고, Hamp-Lyons(1999)와 Allison(1999)도 각각 홍콩과 싱가포르의 대학들에서 ESP 유형의 CBI 교육이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생들의 전공학문을 영어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리라고 예상할 때,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에 대해 쉽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반목적 영어(English for General Purposes) 교육 차원에서 탈피하여, 전공학문과 연계된 특수목적 영어(ESP) 차원으로 영어교육을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학 교양영어교육과정은 장차 진정한 의미의 ESP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생들로 하여금 필요한 기술들을 연마할 있도록 교재개발과 그에 따른 교수/수업 방법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향후 많은 대학들이 CBI 영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기를 희망하며, 본 논문이 CBI 교양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려는 대학들에게 작

은 참고가 되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박준언. 1997. 원어민 교수에 의한 대학생 의사소통 영어교육의 운영결과 분석. 《영어교육》 52, 161-187.
- 박준언. 2000. 외국어 학습의 최근의 흐름과 우리나라 외국어교육에의 시사점. 《Foreign Languages Education》 7, 1-23.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1. 2000년도 대학교육개혁 사례집: 교육과정 개편.
- Allison, D. 1999. ESP and English in Singapore.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8, 4-6.
- Brinton, D., M. A. Show, and M. B. Wesche. 1989. *Content-based Second Language Instruction*. New York: Newbury House Publishers.
- Davies, D., F. MacMartin, S. MacRae, and L. Brown. 2001. *Campus Connections II*. Seoul: Soongsil University Press.
- Dudley-Evans, T. and M. J. St John. 1998. *Developments i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mp-Lyons, L. 1999. Specific and academic purpose Englishes in Hong Kong.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8, 1-4.
- Swain, M. and R. K. Johnson. 1997. Immersion education: A category within bilingual education. In R. K. Johnson and M. Swain, eds., *Immersion Education: International Perspectives*, 1-1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aight, H. S. 1997. Language-based content instruction. In S. B. Stryker and B. L. Leaver, eds., *Content-based Instruction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Models and Methods*, 239-260.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Stryker, S. B. and B. L. Leaver, eds. 1997. *Content-based Instruction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Models and Method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박준언  
 서울시 동작구 상도5동 1-1  
 숭실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부  
 우편번호: 156-743  
 전화번호: 02) 820-0341  
 E-mail: pjeon@ssu.ac.kr

접수일자: 2003. 5. 6.

게재결정: 2003. 6. 1.

## 부록 1

## Campus Connections II의 구성

**INTRODUCTION****Classroom Language****Course Introduction****Introduction to Reading**

- How and What We Read
- Vocabulary Cards
- Preview of Part One

**Introduction to Listening**

- Listening Skills

**Introduction to Writing**

- Why Do We Write?

**PART ONE: CULTURE****Week One***Reading***Introduction to Culture**

- Guessing Meaning from Context

*Listening & Speaking***Talking about Culture**

- Asking for and Giving Clarification

*Writing***Talking about Different Cultures**

- Paragraph Form - Topic Sentence
- What is a Paragraph?



**Week Two**

*Reading*

**Introduction to the Five Cultural Assumptions**

- Scanning

*Listening and Speaking*

**Understanding the Five Cultural Assumptions**

- Listening for Gist

*Writing*

**Exploring the Five Cultural Assumptions**

- Structuring and Planning Your Paragraph

**Week Three**

*Reading*

**Role-playing Cultural Assumptions**

- Review

*Listening & Speaking*

**The Country City, Culture Game**

- Review

*Writing*

**Writing about Culture**

- Editing

**PART TWO: INTERNET**

**Week One**

*Listening & Speaking*

**Introduction to the Internet**

- Listening for Specific Information
- Asking and Answering Questions

*Reading***The N-Generation**

- Skimming for the Main Idea
- Words from Context
- Reading for Detail

*Writing***Talking about the Internet**

- Combining Sentences

**Week Two***Reading***Reading-life Situations**

- Reading for Details
- Role-plays

*Listening & Speaking***Internet Pros and Cons**

- Taking Notes - Listening for Main Points
- Developing a Panel Presentation

*Writing***Supporting your Statements**

- Writing Support-Examples and Facts

**Week Three***Listening & Speaking***Internet Pros and Cons II**

- Panel Discussion - Supporting your Argument
- Listening Survey - Addiction Quiz

*Reading***Internet Addiction**

- Skimming for the Main Idea
- Summarizing

*Writing*

**Writing about the Internet**

- Topic Sentence Support
- Brainstorming
- Using Connecting Words

**Week Four**

*Reading*

**Internet Advice**

- Vocabulary Review
- Reading for Comprehension
- Giving Advice

*Listening & Speaking*

**I Can't Wait / The Computer Song**

- Cloze Listening Activity

*Writing*

**Editing your Paragraph**

- Editing for Grammar and Content
- Avoiding Plagiarism



6. 본 교재가 전공학문을 영어로 학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7. 장차 전공학문을 영어로 수강할 경우, 적절한 영어사용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① 25% 미만 ② 25-50% ③ 50-75% ④ 75-100% ⑤ 100%

8. 전반적으로 본 교재 학습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9. 전공학문을 영어로 학습할 때 걸림들이 될 수 있는 장애요소는 무엇인가? (우선 순위대로 1, 2, 3, 4로 번호를 쓰기 바람)

- (a) 담당교수의 영어사용능력 부족 ( )  
 (b) 학생의 영어사용능력 부족 ( )  
 (c) 전공학문내용의 어려움 ( )  
 (d) 영어강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 ( )

10. 1학년 교양영어과정의 구성은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가?

- (a) 1, 2학기 모두 영어회화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  
 (b) 1학기는 회화위주로, 2학기는 내용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c) 1,2 학기 모두 내용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1. 장차 전공학문을 영어로 수강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 교재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

12. 본 교재학습을 통해 영어의 각 영역별 기능들(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이 균형적으로 학습되었다고 생각하는가?

-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13. 영어의 각 기능들이 균형적으로 학습되지 않았다면, 가장 많이 학습된 영어기능은 무엇인가?

- ① 듣기            ② 말하기            ③ 읽기            ④ 쓰기

14. 가장 학습되지 않은 영어기능은 무엇인가?

- ① 듣기            ② 말하기            ③ 읽기            ④ 쓰기

15. 본 교재의 구성과 내용이 영어학습동기를 유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16. 본 교재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간단하게 쓰시오.

장점: \_\_\_\_\_

단점: \_\_\_\_\_

17. 본 교재학습이 보다 효과적인 전공학문 수강을 위한 영어학습 교재가 되기 위하여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_\_\_\_\_